

화순 도곡면 딸기 공선회, '명품 딸기' 출하 시작



화순군 도곡면 딸기 공선회에서 올해 첫 공

15개 농가 8.9ha 규모 회원 전체 고설재배 “철저한 공동선별로 저렴·맛있는 딸기 제공”

동선별 작업을 거친 화순군 '명품딸기'를 출하한다. 화순군은 지난 12일 도곡농협 제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 작업을 거친 화순 명품딸기가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별장에는 서병연 도곡농협 조합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첫 공동선별 출

하를 축하했다. 딸기 출하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생산량이 늘어 딸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고품질, 고당도 딸기를 선별·출하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철저한 공동선별로 더 저렴하고 더 맛있는 딸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화순군 농수특산물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곡면 딸기 공선회는 15개 농가 8.9ha 규모로 회원 전체가 고설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GAP)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선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명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 선정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증진과 공급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자급 기반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공급능력 등 타당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담양축협은 오는 2023년도에 사업비 30억원(국비9억, 지방비 9억, 자부담 12억)을 투입해 TMR 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일 65톤, 연간 2.4만톤의 TMR(Total Mixed Ration)사료를 축산농가에 생산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공급이 확대되면 높은 등급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경영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사료 자급확대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4분기 회의 개최

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의미 되새겨

구례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기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과 업무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오산 케이블카 설치와 구 문척교 철거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순호 군수는 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오산과 섬진강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

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었던 구 문척교 철거 문제는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보도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였음을 알렸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섬진강 주변과 도지면 문수골에 오토캠핑장 조성, 야간 운전시 마산면 냉천·광평 회전교차로의 위험성, 교통량에 따른 신호등 운영 체계 개선 등이 있었다. 구례군은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군 행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제2기 협의회 임기가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제3기 협의회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섬진강

수달생태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 갤러리107, 겨울 예술 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곡성군이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겨울 예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겨울 예술학교는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곡성읍 중앙로 갤러리107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전통미술, 입체 조형, 자개 공예, 섬유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예술학교 종료 후 완성된 결과물은 갤러리107에서 전시된다.

곡성군은 겨울 예술학교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예술을 향유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간식 들고 부서 깜짝 방문...과업부서 직원 격려

민선 8기 신설부서 '미래전략과' 소속 직원들과 간식 소통



윤병태 나주시장이 부서 깜짝 방문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보듬고 소통의 온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윤병태 시장이 미래전

략과 사무실을 찾아 현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식을 나누며 소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서 깜짝 방문은 직원들과 자유로운 소통과 격무 고충 수렴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적자 출신 윤 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 '첨단산업', '혁신도시지원', '인구청년정책', '데이터기획' 등 5개 팀, 24명의 직원과 CCTV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부서로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 등 국가 연계 정책사업 추진', '전력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혁신도시 시즌2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16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저출산 극복 등 인구정책', '각종 통계 및 공공빅데이터 분석' 등 나주시의 미래지향적 정책·전략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윤 시장이 나주시의 미래전략 핵심 사

업으로 공 들고 있는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핵융합로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 음이온 원 시험시설, 인공태양 연구소 등 국가대형 연구시설 유치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최우선 현안사업인 빛가람동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등이 주요 소관 업무로 꼽힌다.

윤병태 시장은 “미래전략과는 나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 전력 반도체 산업, 인구·청년 정책, 공공데이터 등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신설 부서지만 직급고하를 막론해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격려했다.

윤 시장과 피자 간식을 나누는 직원들은 “깜짝 방문이라 놀랐지만 시장님께서 그간의 우리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미래전략 발굴 부서라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직사회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